

동막골  
소년의  
고백







지금까지의 삶을  
묵묵하게 지켜주고 함께한 아내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 머 릿 글

어린 시절 동막골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보용, 할로, 태선, 봉덕, 요석, 희광이, 그 밖에 많은 친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름답던 동막골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크고 작은 집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가운데 연못가에서 낚시를 즐기고, 봄이면 들로 다니며 빠레기를 뽑고, 차가운 논에서 우렁이를 잡던 그 시절.

큰 비가 내리면 흐린 내 개울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개울을 노닐던 고기 때가 동네 포랑까지 올라오면 얼래미를 들고 고기를 잡아 주린 배를 함께 채우던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재호는 아직도 그 옛날 동막골의 중심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목 차

### 5 머릿글

- 동막골 7
- 소학교 13
- 한기수 선생님 18
- 해태제과 22
- 탄생의 비밀 29
- 아내와의 첫 만남 33
- 철도인의 삶 시작 39
- 짧았던 군생활 43
- 하나뿐인 동생 52
- 아! 나의 아버지 61
- 할머니의 유언 68

- 75 어린 날의 습작
- 84 요즘 날의 습작
- 132 추억의 편지

에필로그 145

동  
막  
골



소년 재호가 살던 1960년대 동막골을 소개합니다. 동막골 마을은 삼태기 모양을 닮았습니다. 맨 앞에 남양 서신으로 가는 지방도로가 있었고, 마을은 삼태기 모양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산에는 한 아름이 넘는 도토리나무가 빼곡히 있었고, 밤 나무도 사이사이에 자리 잡아 소년에게 많은 기억을 선사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매미소리와 도토리나무 밑동에 사는 사슴벌레를 찾아내어, 친구들과 사슴벌레 싸움을 즐기기도 했지요.

가을이 되면 친구들과 도토리와 밤을 많이 줍는 게 경쟁 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을운동회 날에는 어둠이 미처 가시 기도 전에 밤나무 아래에 떨어진 밤을 주우러 나왔습니다. 밤 줍기는 가을 철 일과가 되곤 하였습니다. 마을 바로 앞에는 경부선 철도가 지났고, 철길을 넘으면 흐린 내 개울 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km를 더 가면 맑은 내 개울이 있



### 동막골

었습니다. 들판에는 무서워했던 뱀도 있었지만, 귀여운 도마뱀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호네 집은 동막골 맨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작은 연못이 있었고, 재호네 집 옆에는 마을 공동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은 정말 시원하고 맑은 물을 내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용해도 부족하지 않았습다.



한여름엔 저녁에 종종 등목을 했는데, 추워서 덜덜 떨 정도였습니다. 동네 안에는 열한 채가 있었고, 길 건너에 세

채가 있어서 총 열네 채가 있었습니다.

동막골 마을이 생긴 유래는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들은 대로 써보겠습니다. 일본이 1901년부터 경부선 철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철길 예정지 바로 옆에 커다란 돌산이 있었습니다. 철도에 필요한 자갈을 얻고자 돌산을 파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철도공사가 끝나고 돌산이 있던 자리는 커다란 삼태기 모양으로 파였고, 흙을 메우고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을 동막이라 부르던 그 시절,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동막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막골 오른편에는 소장골이라 부르는 도살장이 있었고, 커다란 복숭아 밭 옆에는 향아리를 만드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곳에서 정말 많은 꿈과 추억을 만들며 자랐습니다.

무서웠던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동막골에서 작은 산을 넘으면 공동묘지가 있고, 그곳을 지나면 재호네 밭이 있었

습니다. 그 밭에는 늘 보리와 참외 농사를 지었습니다. 재호가 참외 밭 원두막을 혼자 지킬 때는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저 멀리서 요란한 기적을 울리며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수증기가 안개처럼 공동묘지 위를 덮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귀신 모양이 보이기도 했고, 곡하는 여자의 음성처럼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재호에게 공동묘지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늘 조심시켰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참외를 따서 영등포 시장에 팔려고 떠난 저녁에 재호 혼자 원두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여인이 공동묘지 사이를 지나 소년이 있는 원두막으로 다가왔습니다. 깜짝 놀란 소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하얀 한복을 차려입은 소년의 할머니였습니다. 소년은 혼자 있을 손자가 걱정되어 달려오신 할머니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공동묘지가 하나둘씩 이장하기 시작

## 동막골

하였고, 동막골 앞 남양·서신방향 지방도로는 왕복 6차선으로 변하면서 동막골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슴벌레와 꿀 말벌의 보금자리인 한 아름되는 도토리나무들이 벌목되면서 동막골의 숲도 사라져 갔습니다.

소  
학  
교



재호의 소학교 입학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재호의 호적은 6.25 전쟁 중에 군에 입대하신 아버지가 제대한 후에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호의 나이가 두 살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홉 살이 되어도 입학통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입학식 날 재호의 손을 잡고 무작정 학교 교장실로 쳐들어갔습니다. 학교와 면사무소를 몇 번 왕복한 후에 재호의 입학이 허락되었습니다. 입학식이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 빈 운동장을 지나 교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재호는 몸이 약해서 늘 고생하고 지각과 결석을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재호는 지금도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셨던 최명순 선생님입니다. 어렸을 때, 유난히 병약했던 터라 운동회 때 달리기 는 항상 꼴찌였습니다. 가을 운동회가 끝나고 나면 다른 친구들은 자기가 받은 상품

을 자랑스럽게 들고 나가는데, 소년은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2학년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쓸쓸히 교문을 나서는 소년의 어깨를 누군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의 손에 노트 한 권을 쥐어주셨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녀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오늘 잘했어. 기운 내!”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타고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한 달음에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유기웅 선생님이십니다. 6학년 방학을 하면서 담임선생님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에 진학할거냐고 물으실 때, 소년은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군포·안양 지역에 중학교는 안양

중학교 하나뿐이었고, 공부 실력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정방문으로 소년의 집에 방문한 것은 여름 방학이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할머니와 아버지는 펄쩍 뛰시면서 왜 중학교를 보내지 않겠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곤 중학교를 가겠다고 대답하지 못했던 소년에게 많은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중학교 진학반 아이들은 조금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였습니다.

소년은 중학교 입학시험 전날 마당에 앉아서 만화책을 볼 만큼 여유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중학교 19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재호의 국민학교 시절 유난히 친했던 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싸우면서 정들었던 명희, 그림을 잘 그리던 철



우, 함께 교회를 다녔던 쌍둥이 두 친구, 가끔씩 재호에게 삶은 계란을 주던 양계장 집 친구까지 모두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점동네에 살던 여자친구는 재호의 마음 속에 늘 첫사랑같은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동막골 숲처럼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  
기  
수  
선  
생  
님



소년은 1969년도에 안양공고 화공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의 진로는 단순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군에 다녀오면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양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안양 공고생은 거의 100%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국어시간에 선생님께서 산문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소년은 「여행」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인생의 여정을 여행에 비유하며 글을 썼습니다. 아마도 소년이 가졌던 종교관인 기독교의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선생님께서 소년을 부르셨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한 소년에게 선생님은 두툼한 원고지를 주시며 계속 글을 쓰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년은 문학 소년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늘 책을 읽고, 일기도 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2 때는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조그만 수첩 노

트를 준비하여, 출발 전날부터 시작하여 모든 일정들을 재미있게 글로 써두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마친 후, 소년이 쓴 기행문을 친구들이 돌려보았습니다. 한 달 쯤 지난 뒤에야 기행문은 소년의 손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 한기수 선생님께서는 직접 타자로 치신 자신의 수필집을 소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수필집은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하던 중 가출한 여고생을 만나 돌봐주고, 무사히 집에 데려다 주신 얘기와 선생님의 여자친구와 사랑하고 갈등을 빚은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소년이 졸업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기수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여자친구의 자살 이후 그 길을 따라가신 것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중 가출한 여고생을 돌봐준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 선생님 여자친구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소년은 얼마동안 정신이 멍해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남긴 「양금」이라는 수필

집은 그의 유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양금」수필집을 빌려간 친구 성찬이는 2019년 11월 28일에 갑자기 재호의 곁을 떠났습니다. 벌써 화공과 1회 고교 동창생 친구 중 다섯 명이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성찬이는 재호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반에서 공부하였고, 병목안마을에 살던 친구의 집을 수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친구가 떠나던 날, 재호는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에서 김치 만들기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딸이 보낸 문자를 보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는 집에 와서 서럽게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해  
태  
제  
과



고교시절 소년은 신학교를 가기로 예정 되어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설립 멤버였던 D교회에서 소년을 신학교를 보내준다고 하셨기에, 할머니와 아버지까지 적극 나섰던 것입니다.

소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학비를 위해 공동묘지 너머에 있던 밭을 파셨고, 그것으로 학비와 송아지를 사주셨습니다. 소년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송아지를 위한 꼴을 베어 와야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이틀 동안 먹을 양을 위해 두 배의 꼴을 준비해야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면제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소년은 신학교에 진학해야하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토요일 학생 예배를 마치고나면 교회 사택에서 자고 주일 저녁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고등학교 3학년 8월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방학 때, 여름성경학교에 필요한 책자와 교재를 만들기 위해 교회에서 가리망을 굵고 등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 졌습니다. 목사님과 모 집사님께서 다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손에 아주 위험한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께서 긴급조치로 교도소에 다녀왔는데, 그게 목사님 때문이라고 항의하며 목사님께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신학교에 갈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문학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목사가 아닌 좋은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3 대입 시즌 때, 교회에서 원서와 추천서가 준비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많은 친구들은 취업이 되어서 학교에는 몇 명의 친구들 밖에 없었고, 대학을 간다는 몇 명의 친구들 틈에서 소년은 신학교에 간다고 알려진 때였



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수요일 저녁에 원서를 가져다가 목요일에 총신대에 접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소년은 그때서야 신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인문대에 가서 문학가가 되겠다고 했더니, 할머니와 아버지 두 분은 격노하셨고, 소년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며칠을 보낸 후, 해태제과에 다니시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취직을 부탁드렸습니다. 집사님 사모님께서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신학교에 간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 취직이 되었고, 작업복을 싸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동안은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였지만, 할머니와 아버님은 곧 체념하시고는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이 입학시즌도 지났고, 소년이 회사 일에 열심히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배치된 곳은 드라이아이스 공장이었습니다. 커다란 Co2 가스탱크와 냉동기·드라이아이스 보관 창고가 있었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지만, 무겁고 차가운 드라이아이스 덩어리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에도 두 겹의 장갑과 토시를 끼고 일해야 했습니다.

2개월 쯤 지난 후, 집사님(금성유업 상무)께서 부르셔서 갔더니 아이스크림부에 가서 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공고가 나왔으니 후리자 기계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작업장에는 남자공원이 20여명, 여자공원이 300여명 되었습니다. 배합실에서 원료가 만들어지고 나면 통로를 통하여 후리자로 이동되고 그곳에서 크림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스크림 통에 크림상태 아이스크림을 넣고, 주걱질로 마무리해서 여러 종류의 나무 스틱을 꽂은 후 염화칼슘 탱크의 롤러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얼린 아이스크림을 뜨거운 물에 상자 통째로 잠시 담근 뒤, 아이스크림을 분리하면 여공들은 포장지를 끼우고 박스에 넣어 냉동 창고로 이동시켰습니다.

썸크림(나중에 해태 브라보콘)은 좀 더 다양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크림용기에 크림을 넣고, 땅콩과 초콜릿을 일일이 넣고, 뚜껑을 닫고, 틀에 넣어 냉동 창고에서 얼린 후에 다시 박스 포장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73년도에 금성유업이 해태제과로 흡수되었고, 아이스크림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업복을 입고 근무했지만, 소년은 후리자 요원이라 하얀 가운과 흰 장갑을 끼고 작업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 공정이 점차 안정되어 갈 즈음 소년과 같이 후리자를 보던 친구에게 커다란 사고가 생겼습니다.

브라보콘 자동포장기에서 근무하다가 포장기 벨트에 면장갑을 낀 손이 말려 들어갔고, 오른손 엄지가 잘리는 사고

를 당했습니다. 그날 작업이 중단되었고 병원에 실려 간 친구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달 쯤 지나 손에 붕대를 한 친구가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같은 교회에 다녀서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악수 할 때마다 마음이 쓰리기까지 했습니다.

# 탄생의 비밀



1973년도 가을, 할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또다시 신학교 입학에 대한 다짐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년은 조심스레 할머니 방을 노크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 재호가 자신의 두 번째 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메기 성결교회(현 고 천성결교회)에 다닐 때, 1946년도에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시고 아들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1951년 1·4후퇴 때 피난을 가다가 등에 업혀있던 아이가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성환 쪽에 다다르던 길이었습니다. 원래 흥역을 앓고 있었는데,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굶주려서 그랬던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어느 산골짜기에 눈을 파해치고 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기엄마는 그 충격으로 어디론가 사라져서 찾을 수 없었고, 할머니와 아버지는 봄에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해 겨울 이웃의 중매로 어머니를 만났고, 이듬해 봄 아버지는 군대에 입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동짓달 스무 나흘 날 저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젖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날을 울며 몸부림치시던 어머니는 소년을 포기하고 울면서 친정으로 가버리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홀로 남은 재호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2km 쯤 떨어진 교회로 달려가 울면서 기도하셨고, 목사님께 사연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소문 하셔서 젖을 먹여줄 아기 엄마를 찾으셨고, 하루에 한 번 소년에게 젖을 먹여 주기로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메기를 오가며 젖을 얻어 먹이고, 2년 쯤 지나 아버지가 제대하고 나와 호적에 올려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소년 재호는 국민학교 때, 유난히 병약하였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교에 가는 날보다 못 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위장 쪽이 약하여 늘 소화불량과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재호에게 인삼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학교에 와서는 비로소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중학교 졸업식 때 3년 전근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를 살리셨고, 너를 살리셨으니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재호는 끝까지 신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렇다면 대신 일찍 결혼을 해야 한다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소년은 이에 동의를 하고서야 방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때 할머니께 마음에 둔 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모두 안된다고 하시며 손주 며느리는 당신이 직접 고른다고 하셨습니다. 재호는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내  
와  
의  
첫  
만  
남



74년 4월 초순에 아버지께서 목포 구경을 가자고 하셔서 따라 나셨습니다. 군포역에서 새벽 6시 40분 목포행 보통 급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은 참으로 처음이라 몹시 설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12시간이나 되는 긴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계속 대피하고 연착하여 오후 1시쯤에 이리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홈에 내려 가락국수로 점심을 때우고, 망사과 한 줄과 삶은 계란, 사이다 1병을 창문턱에 놓고 마냥 먹으면서 갔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들이 정말 신기하였습니다. 논산부터 정읍 사이에 펼쳐진 넓은 평야에 감탄하였습니다. 지리 시간에 배운 호남평야를 실제로 보면서, 저녁 어둑어둑 해질 무렵 명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온 고모부의 안내로 지금 아내의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오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조그마한 증명사진) 보았던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미모가 뛰어나기 보다는 착하게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시골 처녀답게 아주 순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그녀의 안내를 받고 유달산으로 데이트를 갔습니다. 산 중간부터 아래쪽으로 노오란 유채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노적봉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전투 이야기가 새록새록 기억을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노래비를 지나 정자가 있는 산중턱에서 사진사가 사진 찍기를 권했습니다. 사진사는 두 사람의 사진을 찍고 각자의 주소를 받아갔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서로의 집으로 이때 찍은 사진이 배달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사진이 우리가 부부가 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사진 찍는

### 아내와의 첫 만남

것이 대수롭지 않은 데, 그때 만해도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여자가 맘에 들면 짜장면을 먹으라고 귀띔해준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함께 영화까지 본 후 일로까지 버스로 와서 일로에서 택시를 탄 기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한 양쪽 부모들이 서둘러 1개월 후 약혼식을 올리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저녁 열차로 올라오면서 차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소년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이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유난히 신앙심이 돈독했고 예뻐했습니다. 소년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소년의 목을 끌어안고 기뻐해주었습니다. 때때로 데이트를 할 때마다 장래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주일 학교에 대하여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래를 약속하고 크로바 꽃반지를 서로 끼워주며 마음 변치 않겠다고 굳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소년 재호는 다른 여인과 결혼의 결실이 맺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관계를 청산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녘에 군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철  
도  
인  
의  
삶  
시  
작



오월 초에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처 작은 아버님 댁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그때부터 변한 것은 손가락에 커다란 금반지가 끼워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반지는 소년이 예비 신랑이 된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식사자리에서 친척 한 분이 소년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해태제과에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탐탁지 않은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철도원이 안전한 직장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칠월 어느 날, 비번일이었는데 월암동에 사시는 친척아저씨께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오린 철도직원 모집 안내문을 불쑥 내미셨습니다. 철도인이 되면 기차를 타고 전국을 무료로 다닐 수 있고, 가족들도 무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침 처갓집에서 들은 말도 있고, 공짜로 여행 할 수 있다는데 구미가 당겼습니다.

나름대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해 시월, 구내수 철도보조원시보 12등급에 합격했습니다. 120명을 뽑는데 900여명이 넘게 지원하여 긴장을 많이 했는데 무난히 합격한 것입니다. 당시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가점 5점을 더 받았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던 소년은 불리했지만 그럼에도 철도인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지 발령이 바로 나지 않고 이듬해 2월부터 교육을 한 후 발령이 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1975년 3월 25일 인천역 구내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인천역 구내에는 5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역전구내, 축항구내, 남부구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구내원은 열차의 입환과 차량의 연결, 열차조성의 일

을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일은 구내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도착열차의 공기 호수를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성된 열차 호수를 연결하고 전철기의 정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서 입환조에 편입되고 말조차, 중간조차, 더 익숙해지면 입환조장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일은 보기보다 힘들지 않았지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에 도착열차를 분해하고 전용선에 차입할 때는 너무 추웠습니다. 인천역에서 제일 먼 동양화학은 거의 5km가 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10량 이상을 연결하고 후진으로 진행할 때는 맨 앞 차량에 매달려 신호를 해야 했습니다. 인천의 겨울바람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5분에서 10분정도를 매달리고 가다보면 거의 온몸에 마비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은 운이 좋아서 1년 만에 구내서무로 임명이 되었고, 낮에는 구내에서 서무일을 하고, 야간은 역장실에서 근무하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짧  
았  
던

군  
생  
활

1975년 6월경 군입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결혼 전에 군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무심코 지나다 막상 영장이 나오니 난감했습니다. 다행히 우편물을 내가 먼저 받아서 책상 서랍에 비밀리에 보관하였습니다.

8월 초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식구들에게 공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뭔가 생각이 있으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내는 그날 밤 서럽게 울었습니다.

8월 26일은 입대 일이었습니다. 직장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인천역 직원들이 이틀에 걸쳐 소년의 집에 와서 요란한 송별회를 하였습니다.

입대하는 날, 아버지께서는 “걱정마라. 금방 올거다.” 며 아내를 위로했다. 울면서 뒤란 우물결에 서있는 만삭이 다 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가려 무어라 인사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간단한 복장에 신분증을 챙기고 집결지인 만안국민학교로 갔습니다. 그곳에 모인 인원은 거의 500명이 넘어보였습니다. 주의사항과 인원파악을 마친 후 안양역으로 와서 입영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내에서는 건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논산에 내리면 길에서 건빵을 나눠 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니 절대로 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건빵을 받고나니 비로소 군 입대가 실감 났습니다. 열차가 동막골 앞을 지날 때는 주체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연무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니 정말 아이들이 건빵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주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수송연대 내무반은 가운데 통로가 있었고, 양쪽에는 사물

함이 한 개 씩 있었습니다. 사물함 한 개에 한 사람씩 자리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점심은 운동장에서 나누어 준 빵과 우유로 대신해야했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당번을 정해서 주방으로 가서 밥과 국, 반찬을 타왔습니다.

보리가 절반이 섞인 밥과 무 조각 몇 개가 들어간 국, 김치와 깍두기가 전부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퍼서 입에 넣으니 너무 맛이 없어서 차라리 국에 말아 먹으려고 밥을 국에 말았는데 하얀 쌀벌레가 떠올랐습니다. 기겁을 하고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내무반 선배가 어깨를 툭 치며 앞으로 절대 국에 말아먹지 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날 저녁은 낮에 받은 건빵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군번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퇴짜를 맞았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와서 머리를 깎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발소에는 긴 줄이 서있어서 언제 차례가 올지 몰랐습니다.

저녁에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데, 한 친구가 가위를 구해와서 내무반 앞 나무 밑에서 머리를 잘라주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친구들이 도와주어서 머리를 대충 정리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가서 줄을 서서 몇 군데를 들렸는데 시력검사에서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잘 안보여서 우물쭈물 했더니 바로 옆으로 빠지라고 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라고 했지만 옆에서 버티고 섰습니다. 한참 후 시력검사를 하던 일병이 내게 시력검사 지휘봉을 주고 앞에서 시력검사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하니 팔이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꼭 참고 저녁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라는 말을 듣고 내무반으로 돌아 왔습니다. 한 명씩 군번을 받은 친구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새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나갔더니 안과 검사하는 담당 장교가 부르더니

“너 열흘만 있다가 집에 가라.”

며 씹듯이 웃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도 여기 와서 봉사해야해.”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일을 더 시력검사실에서 시력검사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낮에 피마자 밭에서 제초 작업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오는데 목욕탕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욕탕에는 아무도 없었고, 맑은 물에 넘칠 듯 담겨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도 아무도 없기에 살짝 들어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옷통까지 씻다가 관리병에게 들켰습니다.

“야 새끼야! 어금니 물어!”

하더니 불파구가 화끈 거렸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씻었다는 즐거움에 얼른 인사를 하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시간에 내무반장이 내일 식사준비 담당이니 일찍 자고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밤중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목욕탕 욕조보다 몇 배나 큰 통에 쌀을 몇 가마 넣고, 물을 넣고, 삽으로 휘저으며 쌀을 씻었습니다. 장화를 신은 친구들이 안에 들어가서 삽으로 젓고, 쌀을 씻은 후에 찜통에 삽으로 쌀을 퍼 넣었습니다. 그때쯤에는 벌레 있는 밥도 곧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12일 동안 소년은 라면도 먹고, 닭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담배를 몇 개피씩 켜는데, 피우지 않는다고 받지 않으니, 다른 친구가 다음에는 받아서 자기

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10일쯤 지났을 때 호출이 왔고, 귀향을 위한 마지막 심사가 있었습니다. 소년을 담당했던 대위가 전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고개만 끄덕이라고 말입니다.

그 날, 여러 사람 앞에 불러간 소년을 향해 무어라고 할 때마다 시킨 대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귀향 확정을 받았습니다. 귀향 전날 밤에는 몇몇 고향 친구들이 찾아와 주소가 적힌 편지를 써서 소년의 바지춤 안쪽에 꿰매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안부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논산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귀향 여비로 차표를 사고 나니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목욕도 하지 못하고 입던 옷을 그대로 입은 소년의 모습은 마치 죄수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아주머니가 몹시 불편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망사과와 우유를 하나씩 샀습니다. 단숨에

먹어치우고 나니 조금은 살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께 입영하였다가 귀향하는 길이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편안히 앉으시곤 삶은 계란도 사주셨습니다.

군포에 도착하고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두워진 후에 들어갔습니다. 창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들어간 지 12일 만에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후 귀향 때 받은 서류를 제출했더니, 이듬해 신체검사에서 징집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소년보다 눈이 더 나쁜 친구들도 안경을 맞춰주고는 훈련소로 갔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소년은 해병대를 나온 친구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소년보다 6개월 먼저 군대에 간 동막골 친구는 소년보다 3년이나 늦게 제대를 했습니다. 수용연대 내무반에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얼떨결에 별명을 불렀다가 다른 군인에게 혼이 났었지만 친구가 잘 카바해주었습니다.

하  
나  
뿐  
인  
동  
생



1975년 9월 12일 인천역 구내에 다시 복직했습니다. 군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런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직장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귀향 전 소년에게 노란 서류봉투를 내주던 장교(대위)는 소년의 어깨를 ‘툑!’ 치며

“내년 징병검사 때 이 서류를 제출 하거라. 다시는 군대에 오지 않게 될거다.”

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가 웃던 모습이 생각나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같은 반에서 소년보다 눈이 더 나빠서 맨 앞자리 앉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도 칠판 글씨가 보이지 않아 소년의 노트를 베끼던 그 친구는 안경을 맞추고 훈련소로 갔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인천역에 근무하면서 철도규정에 대해 너무 무식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직원 중에는 철도고등학교 출

신도 있었고, 소년과 같은 공채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철도 규정을 공부한 친구들을 따라 갈 수는 없었습니다. 구내 과장이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규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인천 출신인 오덕원씨가 지은 규정집을 구했고, 직접 강의를 듣기도 하였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1976년 봄 연례 행사인 ‘열차 안전운행 향상의 달’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철기 지적확인 환호응답 경기대회’에 참가하였고 역에서 시행된 예선에서 선발되어 금촌역에서 시행된 결선에서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철도에서 첫 번째 받은 표창이었습니다.

여름에 있었던 시문경기에도 참가하였고, 가을에 있었던 역무경기 구내 사무부문에 도전하여 지방청에서 3등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1976년 말, 인천역에서 우수 공무원 표창을 상신하여 받기도 하였습니다. 입사 2년도 안 된 신참이 우수 공무원 표창을 받은 것은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당시 이옥현 역장님께서 전 직원 점호시간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1977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근무하였고, 역무경기는 여객사무와 화물사무로 개편되었습니다. 역무경기 여객사무에 도전하여 서울 지방 철도청에서 1등 차지하여 10월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1977년도에는 평생 잊지 못할 큰 폭우를 경험했습니다. 7월 7일 안양, 군포지역에 2시간 30분 동안 450mm나 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집 마루에 앉아 근심스럽게 바라보신 아버님께서 그냥 바켓스로 퍼붓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인천역 구내에 물이 잠겨 입환작업도 중단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로에서 수원 사이에 선로가 여러 곳이 유실되어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군포역은 옆에 흐르던 흐린 내 개울이 범람하여 물에 잠겼습니다. 철길 옆에 있던 두산 유리에는 만들어 놓은 병

상자가 물에 휩쓸려 거의 다 떠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오봉산 밑에 자리 잡은 당정리에서는 축사의 돼지와 닭들도 개울로 떠내려갔다고 했습니다.

8일 아침에 퇴근하며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구로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호계동 사거리에 왔는데 사거리 지역이 온통 진흙 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에는 내놓은 가구들과 옷가지들이 잔뜩 널려있었습니다.

동막골은 지형 상 조금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산에서 내려온 물이 뒤란 굴뚝(흙으로 만들고 구멍만 낸 모양의 굴뚝)을 타고 들어와 부엌 아궁이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부엌에 쌓아놓은 연탄은 모두 부서져 버렸습니다.

11월 초에 있었던 본청역무경기에서 아쉽게도 4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지방청에서 본청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 여섯 명에게 예쁜 만년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년필을



전달받은 12월 17일 저녁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날 결근한 동료대신 도착 화물열차를 축항구내로 유도하는데 앞이 안 보일만큼 눈보라가 쳤습니다.

이튿날 만년필을 동생에게 주려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보니 슬픈 소식이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보니 차디찬 세멘바닥에 소년의 동생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도 없이 깨끗한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차주가 찾아왔습니다. 뜻밖에 그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소년의 담임선생님이셨습니다. 그냥 더 서러워져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선생님께서 퇴직하시고 퇴직금으로 작은 트럭을 사서 사거리에 있는 삼영화학에 지입차를 타고 아들이 운전하였다고 했습니다. 남달리 인정이 많으셨던 아버지께서 원만하게 합의해주셨고, 나중에 탄원서까지 만들어 차주의 아들을 교도소에서도 나오게 도

와주셨습니다.

동생을 수원 매교동에 있는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유골을 산에 뿌리고 오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운전을 하지 않겠노라고...’

50이 넘어서 운전면허는 취득했는데, 지금도 운전엔 별관심이 없습니다.

소년이 철도에 입사하던 해에 소년의 동생은 수원에 있는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동생은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주산을 배운 지 6개월 만에 단을 땀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소년과 소년의 동생은 유난히도 의리가 좋은 형제였습니다. 서로의 개성이 강해서 가끔은 다투기도 했지만, 소년은 소년의 동생에게 이름을 부르기보다 꼭 ‘아우’라고 다정하게 부르곤 했습니다.

“형! 이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줄게. 형은 좋아하는 사회 사업해. 고아원도 세우고...”

동생이 소년에게 늘 중얼거리며 하던 말이었습니다. 바지는 칼날처럼 주름을 잡아 입던 멋쟁이였고, 연예인들과 펜팔하기를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 축하공연 준비를 하던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눈 내리는 밤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소년은 몹시도 방황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신을 원망했습니다. 정말 신께서 살아 계시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착한 동생을 죽게 하셨냐고 몇 날 며칠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응답도 받지 못하고 지쳐서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그 후, 철도에서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점점 나태해져갔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글 쓰는 것조차 재미가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그 이듬해 3월 인

천역 구내 과장님으로 승진해 오셨던 원종하 과장님께서 서울역 여객 과장으로 영전해 가셨고, 가시면서 소년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원종하 과장님께서서는 나중에 서울지방철도청장까지 하셨고, 늘 소년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재호는 인생의 거의 2/3이상을 철도에서 보냈습니다. 서울역 앞에 있던 교통부빌딩(대우빌딩)에서 원서 접수를 시작하여 철도에 입사하게 되었고, 구내원, 구내수, 역무원, 소화물, 운전원(관제업무), 열차 승무원 등으로 40년 가까운 세월을 철도에서 보냈습니다.

퇴직 후에도 SJ파워에서 6년을 근무했고, 현재는 코레일 네트워크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을 철도와 함께 보냈습니다. 철도에 함께 입사한 동기들,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삶과 우애 등을 다 적지 못함이 무척 아쉽습니다.

아!  
나  
의  
아  
버  
지



1985년 7월 17일, 마루에 앉아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있는데 중앙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전날 저녁에 입원시켜드리고 아침에 담당의사가 한 열흘쯤 차도를 보고서 치료방법을 선택하자고 했는데, 불과 3시간도 안되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마루가 폭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겨우 59세이셨습니다.

19일, 장례를 모시는 날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천막을 치고서 묘를 파고 장례를 모셔야 했습니다. 오메기 안동네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젖소를 기른다고 운구길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아래쪽 논두렁길로 아버지의 관을 네 사람이 메고 운구하였습니다. 지금 그 동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작은 공원으로 변해있습니다.

아버지는 소년 재호에게 최고로 다정다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로 화목하지 못하셨습니다. 툭툭하시고 엄한 시어머니와 조금은 부족한 며느리 사이에서 아버지는 갈등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재호가 5-6세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고천에 살고 있었는데 마당 가운데 우물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섭게 싸우셨는데 그 기억은 재호의 머릿속에서 늘 떠나질 않았습니다.

군포에 친척이 살고 있었고, 할머니가 다니시는 교회가 구군포사거리에 있는 연고로 재호가 6살 때 동막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젊으셨을 때 아버지는 상당히 명석하셨습니다. 군대에 계실 때 소대원들의 편지를 읽어주시고 대필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소대원 몇 명이 단체로 휴가를 나와 고천에 있던 집을 직접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최근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고천리 276번

## 아! 나의 아버지

지입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추억을 새기며 찾아가 보곤 했었습니다.

재호가 초등학교 시절, 방학 때면 개학이 1주일 쯤 남았을 때면 늘 숙제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종아리를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60년대에는 나무를 이용하여 취사를 하고 온돌방 난방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겨울이면 하루에 두 번씩 나무를 해 오셨습니다. 집에서 4km나 떨어진 수리산을 두 번씩 왕복하신 것입니다. 당시 군포시장에서는 아버지가 해온 나무 짐이 제법 인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아래 두 분의 고모들을 정말로 헌신적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재호 외갓집에서 어머니 뭍으로 받은 돈은 큰 고모 정육점으로 변신했고, 재호 동생 교통사고로 받은 돈의 일부는 작은 고모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발 벗고 나셨습니다.



재호가 중2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일요일 교회에 갔다 와서 원두막을 지키기 위해 공동묘지 밑 참외밭에 갔습니다. 재호 친구 세 명이 원두막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쿠리에 참외를 따다 친구들에게 깎아주고 먹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가신 다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연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참외서리를 하다가 들켜서 붙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야단을 치시지 않고 참외를 실컷 먹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소년의 또래들은 종종 먹거리 서리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어른들도 조금은 관대하여 야단을 덜 치셨습니다. 그 이후 소년의 친구들은 재호네 참외 밭에는 얼씬도 안했습니다.

재호가 중2 가을에 처음 손목시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웃마을 상갓집에 다녀오셨는데, 상가에서 밤샘놀이를 하시다가 누군가로부터 시계를 사셨습니다. 새벽이 되어 아버지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음에도 끝내 시계를 내놓

지 않고 집으로와 재호에게 시계를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시계방에 가서 시계 줄을 줄여서 고2때 자동시계를 찰 때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결혼생활은 불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1946년도에 오메기 성결교회에서 중매로 결혼하셨습니다. 아들을 얻고 행복했던 시기에 6·25사변을 만났습니다. 1951년 1·4후퇴 때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1951년 가을 이웃의 소개로 별말에 살던 재호의 엄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의 결혼생활은 그리 화목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딸만 여럿이 있는 집 맏딸이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공부는 안 시키시고 늘 농사일만 가르치셨습니다. 농사일은 여느 남자 못지않게 잘하시는데, 집안 살림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툭툭한 시어머니께 늘 구박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재호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 술로 매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인 재호에게도 실망을 하셨는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할  
머  
니  
의

유  
언



1988년도 2월 15일 할머니께서 소천 하셨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3년 만에 아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재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었습니다.

재호가 9살 때 국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의 입학통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적에는 여전히 7살로 되어있었고, 그것도 동짓달 생이었으니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신 할머니는 무조건 재호의 손을 잡고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의 실랑이가 오가고 할머니의 간절함이 교장선생님을 설득하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왜 네 엄마는 나이가 많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무렵이었습니다. 금산 인삼장수 아주머니가 재호네 집에 왔고, 그때부터 할머니는 재호에게 인삼을

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36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의 논을 얻어 농사를 지으시고, 무당집에서 주모로 일하시면서 아이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교회를 소개해 준 사람은 무당이었습니다. 어느 날 삼남매가 모두 웬병(독감)에 걸려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2년 전, 할아버지를 데리고 간 무서운 병이라 할머니께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당집에 데리고 가서 살려 달라고 애걸복걸하니 무당이 말했습니다.

“송주모, 나는 아이들을 살릴 능력이 없소! 오메기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다오 거기서 데려가 보시오.”

그 길로 아이를 들쳐 업고 2km 떨어진 오메기로 갔습니

다.

교회 목사님의 기도와 교인들의 정성어린 보살핌덕분에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6·25때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구사거리에 와서 몇몇이 모여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때 재호네도 교회가 가까운 군포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곳 동막골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의 믿음은 절대적이었고, 재호와 온 식구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아침, 재호 부부를 불러서 할머니 방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젠 다 필요 없으니 밖에다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 할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재호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직장을 쉬고 있는데 오전에 군포사거리 신원당 약방까지 걸어가셔서 재호의 약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사거리까지는 2km가 되었습니다. 약을 먹고 할머니와 민

화투를 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일어서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6시 전에는 꼭 들어와야 한다.”

친구를 만나고 5시 반이 조금 안되어 들어왔는데, 할머니님 건강이 급히 악화되어 한성병원으로 모셨더니 시간이 늦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8시 30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990년도에 산본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팔 의향이 없느냐고 복덕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와 계약하기 위해 복덕방에 갔다가 갑자기 할머니의 유언이 생각나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소년의 집을 사고 싶었던 사람이 1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산본 신도시 아파트가 32평정도가 6-7천만원을 했기에 집을 팔아 아파트로 가면 농협대출금



700만원을 갚으면 7천 정도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그때의 일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돌아가  
시던 날 낮에 할머니의 유언은 절대 집을 팔지 말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대로 꼭 지키고 살아라.”

재호가 할머니의 유언을 기억하고 지켰던 이유는 할머니  
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 십 년을 속앓이 병으로 고생  
하였기 때문에 재호에게 일찍 결혼 할 것을 강요하셨습니  
다. 재호는 지금도 그때 할머니의 속앓이 병을 고쳐 주셨  
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고2 때 겨울  
에 할머니께서 재호의 운동화를 아궁이에 댄히다가 운동화  
에 불티가 튀어서 구멍이 났습니다. 저녁에 할머니는 머리

### 할머니의 유언

를 잘라서 재호의 새 운동화를 사주시고는 몇 달 동안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니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재호의 모든 뒷바라지를 도맡아 주셨던 할머니의 크신 사랑이 재호가 할머니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떠나고 동막골 뒷산은 주택가로 변했지만 재호는 아직 동막골을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  
린  
날  
의  
습  
작



〈산문〉

왕  
님  
골

산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서로 어울려 작고 아담한 동네를 이뤘고, 그 주위를 우람차게 둘러섰습니다. 왕님골 사람들은 그 산을 배운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수호신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산골짜기로 몰려와 무서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6·25 사변이 터진 해 구월의 일입니다. 뜨거운 별도 서서히 가시고 나뭇잎도 하나 둘 제 색깔을 잃어 내렸습니다. 밤이면 사람들이 산 말랭이에 올라서서 멀리 인천 쪽을 바라보며 빨간 불뚝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함포 사격을 구경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입에선가 유엔군이 꼭 올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것은 유엔군이 공격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포화가 한 번 지나고 또 두 번이 지나서야 부모들은 이 산 밑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헐어진 집을 고쳤습니다. 포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앞뜰에 흐르는 물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운산 골짜기 눈이 녹고 몇 차례 잔비가 지난 후에 핏빛이 가셨습니다. 봉우리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들을 들춰내며 자랑했습니다.

꽃들로 덮인 산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마도 추악한 곳에서라도 꽃은 피어날 수 있었겠지요. 왕님꼴 사람들은 오랜만에 찾아오는 봄 아가씨를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작은 돌의 이마를 스치며 노래하는 맑은 물과 새들의 합창이 귀한 봄 손님을 환영하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쟁기를 잡은 농부의 손도 점심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아주머니도 다같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사실을 직접 보도록

하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고 조심스런 몸짓으로 들려주셨습니다. 1952년 봄의 일이니까요. 나뭇잎이 푸르름에 따라 전쟁도 한층 가열되고 우군의 승리가 확실해져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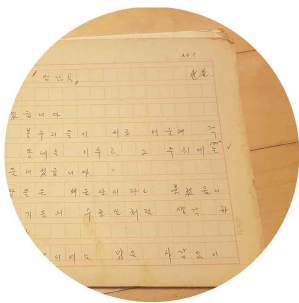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이 이 지루한 전투가 빨리 끝나기를 고대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의 침략은 36년 간 일제치하의 비참함보다 더 슬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오랜만에 추수다운 수확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2년 전 모를 심다 말고 피난할 때의 기억은 모든 사람의 머리에 잊히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농사지만 할머니와 어머니는 부지런히 일하셔서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삼대독자인 아들을 군에 보내 놓으신 할머니는 새벽마다 먼저 주님(예수 그리스도)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적은 부족한 인생의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다시

금 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눈 내리는 겨울이 와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  
짓달 그리고 스무 나흘날밤 어머니는 고통과 함께 힘찬 생  
명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952년 11월 24일 호적에 새  
식구가 생겨났습니다. 언젠가 그렇게도 바라는 나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펜을 든 나는, 나의 출세를 존경하는 당신  
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1974년 8월 14일 밤 11시 45분

〈단편소설〉

대  
화  
와  
길

소리없이 전동차가 멎었다. 많은 사람들에 영도 밀려나왔다. ‘구로역이라! 여기서 보면 대강 알 수 있겠군!’ 영은 간만에 지도에서 본대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저쪽은 오류동이고... 오호라! 동신화학이 이쪽에 있는... 그렇다면 신정동은 저 쪽 산이 막고 있는 오밀조밀한 주택이 있는 곳이겠군.’

영은 안쪽 주머니에서 패스를 꺼내 보이며 역원에겐 눈도 안 돌렸다. ‘웁지. 저 계단아래 아가씨가 한 분 계시군.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니 이 근처 살고 있는 모양이라. 그런데 이 가방이 좀 어울리지 않는 걸 꼭 촌딱이 서울구경 처음 온 것 같으니. 원참.’ 영은 혼자 투덜거리며



계단을 짹째 내려갔다.

- “아가씨, 말씀 좀 묻겠습니다.”

“무엇인디요?” 아가씨는 조금 놀란 듯이 영의 얼굴을 쳐다보며 요점을 물었다. ‘흥! 별로 예쁜 얼굴은 아니군.’ 영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머리에 스쳤다. 이내 침착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다.

- “저, 신정동가려면 어디로 가야합니까?”

“신정동이요? 글썄... 잘 모르겠네유. 저 순경한테 물어보세유.” ‘쳇! 시골뜨기군 아마도 서울에 와서 순경한테 도움을 받은 게지. 참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 “네? 순경이요? 예. 감사합니다.”

영은 매우 고맙다는 듯이 인사를 하곤 발길을 돌렸다. 몇

걸음 나서다 다시 뒤를 돌아다보았을 때 그 처녀가 아직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굴다리 밑을 작은 차량들이 부지런히 드나들고 있었다. 조금 지나니 과연 삼거리가 나타나고 작은 파출소가 보였다. ‘순경한테 물어 보세요.’ 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 ‘그렇지 한 번 물어보지. 순경을 무서워하는 바보처럼 어리석은 놈들은 없지. 순경이야말로 우리의 훌륭한 봉사자인데 사람은 역시 빠르게 써먹을 줄 알아야하는 법이야.’ 영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아침 문을 열고 나오는 순경과 마주쳤다.

-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신정동을 갈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순경은 영을 한 번 쓱 훑어보더니

“음, 저 길로 쪽 빠지면 되지!” 이렇게 한 마디만 말했다.

- ‘헛! 이렇게 목석같은 사람이 있을까? 좀, “아, 이 길로

한참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하면 못쓰나?’ 영은 또다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길을 따라 발길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오전에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중 한 사람이 누굴 찾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 쑥스러워서 애인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총각 친구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생각한다. 정말 애인을 찾기 위해서라면 물어 물어 천리 길이라도 찾아내리라고. 어제 밤 지도에서 본 것과 거의 들어맞는다. 그런데 도무지 다른 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길고 높은 공장담의 연속이다.

‘이거 어찌된 것일까? 혹시 잘못 들어온 게 아닐까? 야까 그 작은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여튼 더 가보자 누굴 만나면 또 물어보지. 오늘 내가 가야할 길, 가는 길이란 물어서 얻은 대화가 지시해주리라.’

요  
즘  
날  
의  
습  
작



〈단편소설〉

복  
두  
칠  
성  
의

비  
밀

뒷마루에 앉아 동네 어귀를 바라본다. 벌써 6시간이 지났다. 적막하다. 오늘따라 오가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장댁 논이 벼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지 않는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이 내 81번째 생일인데. 5년 전에 먼저 간 아내가 보고 싶다. 오늘 같은 날은 더욱 그렇다.

가을 해가 벌써 중천에서 기울고 있다. 동네 맨 위에 사는 일준이가 내려왔다.

- “여보게, 일산이. 뭐 그렇게 먼 산만 바라보나? 밥 먹으러 가세.”

그제서야 아침도 먹지 않은 게 생각났다. 생일 아침을 굶은 날이 몇 번이었을까? 일준이가 한 움큼 따가지고 온 무화과를 한 입 깨물었다.

마을회관에는 벌써 식사하려고 모인 노인들로 가득했다. 3년 전에 귀농한 군산댁이 분주히 상을 차리고 있었다. 오늘이 일산이 생일인 것을 아는 유일한 친구 일준이가 군산댁에게 미리 미역국을 부탁해 놓은 덕분에, 일산이는 생일 미역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미역국을 한 수저 입으로 가져갈 때,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서울에서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들쭉날쭉할 때 명산리 일산이네도 경사가 있었다. 큰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포항에 있는 큰 회사에 취직한 것이다. 명산리 마을 전체가 경사였다. 온 동네 사람이 모여 커다란 잔치를 벌

였다. 그날은 일산이 내외가 환갑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마을에 박사가 태어났다고 밤늦게까지 잔치가 이어졌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엇그제처럼 기억이 난다.

아침에 작은아들이 전화했다. 태풍 매미의 복구 피해 때문에 바빠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다. 작은아들은 Y시의 지방공무원이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일준이에게 말했다. 오후에 같이 시내에 가자고 말이다. 일준이는 흔쾌히 수락했다.

마을회관 공사로 알게 된 목공소에 들렸다. 일산은 신희초에 아내와 함께 베고 자던 베개가 생각났다. 그 크기만한 튼튼한 나무 상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 “일산이 그걸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그냥. 쓸 일이 있네.”

일산은 상자를 찾아온 날, 유난히 바쁘게 보냈다. 목공소에 부탁해서 니스도 칠했다. 상자를 받고 보니 조금 부족한 듯하여 집에서 예쁘게 덧칠했다. 아내가 좋아하던 분홍색이었다. 예쁜 상자가 완성되었다. 준비했던 것들을 채우고 나서 목침 옆에 놓아두었다. 커다란 자물쇠가 달린 분홍 나무상자가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주말이었다. 작은아들 내외가 내려왔다. 그래도 진심으로 마음을 써주는 작은 아들이 고마웠다.

- “아버지 이 상자는 뭐예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만들어 봤어.”

예쁜 나무상자를 이리저리 만져보며 신기해하는 작은아들이었다. 열쇠로 잠겨있는 상자의 안을 무척이나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한참을 보던 작은아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아마도 형에게 보여줄 모양이다. 일산이가 만든 나



무상자는 바로 효력을 발휘했다. 며칠이 지나자, 생일에 못 와서 죄송하다며 큰아들도 다녀갔다. 그러면서 나무상자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물어왔다. 일산은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다.. 큰아들은 신기한 듯 상자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흔들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내용물을 가늠해 볼 수는 없었다. 그 후로 아들들의 발걸음은 조금 더 잦아졌다. 일산은 상자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일산의 선배인 봉래 형님이 돌아가셨다. 자식들이 모시고 무안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갔다. 젊은 날, 마을에서 장례를 모시던 게 생각났다. 장례가 있는 날이면 밤에 꽃상여를 꾸미곤 했다. 그때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어른이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빈 집도 늘어나고 있었다. 노인들만이 지키는 마을이 되었다. 노인이 떠나고 나면 집은 한참을 텅 그러니 저 혼자 있곤 했다. 작은 농지는 타인의 손에 넘어갔다. 술이 고된 일준이가 서둘러 내려왔다. 둘이서 봉래 형님 문상을 다녀왔다.

- “형! 지난주에 명산에 다녀왔어?”

“응, 그래. 아버님은 아직 정정하시더라. 그 상자도 예쁘게 만드셨더라구.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 “형이 물어보지 그랬어? 나한테는 말씀할 안 하시던데.”

“나한테도 아무 말이 없으셨어.”

두 형제는 나무 상자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갔고, 관심사가 되었다. 아무튼 무언가 귀한 것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언급도 없으신 아버님이었다. 아마도 사후에 남겨주실 유산일까 싶었다.

세월의 무게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유일한 벗이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일준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가 떠난 지 3년이 되었다. 아침을 거르고 산지가 꽤 되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눈알이 침침해진다. 외

로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내일이 84번째 생일인데 아마도 미역국을 못 먹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군산댁이 알려준 휴대폰 단축 다이얼을 간신히 눌렀다.

-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산 할아버지?”

휴대폰의 소리가 아득히 멀리서 들리는 듯했고, 일산은 끝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군산댁의 연락을 받은 아들들이 오후에 도착했다. 무안 장례식장에서 일산의 장례가 치러졌다. 전날 밤, 군산댁이 급히 방문했을 때, 일산은 마지막 호흡을 삼키고 있었단다. 장례를 마친 두 형제가 집 안을 정리했다. 모두 상자에 관심이 갔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문고리 옆에 달린 열쇠를 찾아 함께 열어보았다.

제일 먼저 보인 것은 두 아들이 가지고 놀던 유리구슬이었다. 그 옆에는 딱지도 있었다. 초등학교 성적표와 생활기

록부도 있었다. 아들들의 백일, 돌사진도 있었고 큰아들이 박사학위를 받던 날의 사진도 있었다. 아들들은 상자 안을 모두 확인하고는 크게 실망했다. 돈 될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형은 그냥 먼 산을 바라보며 허탈해했다.

- “형, 이거 형이 가져갈래?”

“아냐, 너 가져. 그래도 아빠가 널 많이 사랑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네 흔적이 많아.”

결국 상자의 임자는 작은아들이 되었다. 집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작은아들은 상자를 다시 살펴보았다. 내용물을 다 꺼내 놓았는데, 상자 바닥에 북두칠성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다. 여름 마당에 명석을 깔고 옥수수를 먹을 때 북두칠성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저 별이 주걱 모양이다, 큰곰자리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중에는 주걱의 손잡이 부분에 비밀이 있을 거라고 말하곤 하셨다.

‘왜 상자 맨바닥에 복두칠성을 그려 놓으셨을까?’ 상자를 이리저리 만지다가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았다. 송곳으로 주걱 손잡이 부분을 누르니 바닥이 들어 올려졌다. 그 안에는 하얀 편지봉투가 있었다. 아내를 급히 불렀다. 잡동사니에 실망했던 부인은 자기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 “여보! 빨리 와봐!”

봉투 안에는 편지와 수표 한 장이 있었다.

- “여보! 이게 얼마야? 동그라미가 9개네!”

작은아들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끼억끼억 울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난 정말 너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삼대독자

인 내가 큰아들을 낳았을 때, 내 부모들은 온 마을에 떡을 돌리며 기뻐했다. 내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었다. 지금 두 아들이 행복한 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다만 7년 전, 먼저 하늘나라에 간 네 어미가 보고 싶다. 내게 시집을 와서 온갖 고생만 하고…. 명산 땅을 정리했다. 집은 그대로 두었다. 내 남은 숨결을 방안에 두고 싶었다.

작은아들은 편지를 읽다가 눈물범벅이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논둑에서 뱀에 물려 쓰러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일로까지 뛰어간 일이 생각났다. 그날 작은아들은 뱀의 공포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을 맛보았다. 땀에 범벅이 된 아버지의 등에서 뱀에 물린 생각을 잊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낀 것이다. 의사가 독사가 아니라 관찮다는 말을 듣고는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머리를 적신 땀을 닦으셨다.

아버지는 짜장면을 먹고 가자고 하셨다. 그날 먹은 짜장

면은 정말 맛있었다. 형이 대학 입학하던 때에 뒷골 300평 짜리 밭을 파셨다.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고생이 미안해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 “저 서울에 가서 돈 벌게요. 그리고 대학은 그 후에 가겠습니다.”

작은아들은 당시 집 형편이 대학교 3학년인 형 외에 자기까지 학교에 가서 1년에 두 번 나오는 등록금을 마련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꼭 대학에 가라고 하셨다. 대학 등록금 납부 마감일을 며칠 앞두고 우리 집의 가장 큰 보물인 암소를 일로장에 가서 파셨다. 암소가 있던 외양간에는 작은 송아지가 들어왔다.

결혼식에 입으셨던 양복을 20년 넘게 입으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계셨던 아버지를 잘 돌보아 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왔다. 그 밤을 뜬눈으로 지

쌌다.

작은아들은 한 달 후에 근무하던 주민센터에 사직원을 냈다. 그리곤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는 논밭을 정리해 수표로 만들었고, 작은아들은 수표로 다시 논밭을 회수했다. 산 아래 작은 밭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같이 모셨다. 아내를 위해 집을 리모델링 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잊어 다시 내려온 것이다. 아이들도 제법 커서 독립할 나이가 되다 보니 별걱정이 없었다. 시골집이긴 했지만, 부엌이 깔끔해지니 부족함이 없었다. 아내가 말했다.

- “여보, 마당의 화덕에다 당신이 밥해줘.”

“그럴까?”

아버지의 보호자였던 군산댁이 찾아왔다.

- “그동안 마을의 친구가 없어 심심했는데, 내려와 주어서



감사해요.”

세 사람은 마당에 서서 이장집 논에서 자신의 논이 된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벼가 고  
개를 숙이고 있었다. 기쁨의 미소가 입가를 스쳐 갔다. 다  
정하셨던 아버지의 미소도 바람결에 다가왔다. 어디서 왔  
는지 고추잠자리가 마당을 산책했다. 가을의 석양이 따스  
하다.

2024.9.17

〈산문〉

향  
수  
병  
이

도  
졌  
어  
요

나는 가을을 탄다.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하지만 나는 늘 쓸쓸해진다. 벌써 오래전부터 가을이 오면 반복된다.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서서히 우울한 생각이 온몸을 적신다. 가장 기뻐해야 할 성탄절이 다가오면 기쁨보다 더 커진 우울증에 때로는 가출도 생각했다. 그래서 무작정 여행을 떠났다. 11월이 접어들면서 몇 가지 일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마음속에서 작은 분노가 싹을 키웠다.

10월 어느날, 동생이 카톡을 보내왔다.

-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월, 화, 수에 있어요.”

화요일 저녁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갔다. 맨 끝줄에 앉았다. 그리운 얼굴들이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안부를 전한다. 끝나고 나오려는 데 선배이며 권사님이신 A권사님이 내 손을 잡고 반색한다. 장로님이 사주신 가죽장갑을 아직도 끼고 있다면서 끌어안고 놓아 주시길 않는다. 벌써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니 눈물이 핑 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몇몇 아는 이들이 정류장에 있었다. 슬그머니 피해서 근처 아파트 아름다운 경계석을 감상하며 슬며시 외면했다. 건너편에서는 오늘 예배에 피아노 반주했던 조카가 나를 보곤 열심히 손을 흔든다. 고향은 늘 그리움과 정으로 가득하다.

금요일 낮에 교회에 갔다. 오전에 카톡으로 파일을 보냈고, 출력을 부탁했으니 당연히 준비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했다. 내 예상은 빗나갔다. 많이 바쁜 것 같았다. 저녁엔 주시겠지 하고, 교회 옆 꿈땅도서관으로 갔다. 개관식 때 걸어놓았던 현수막이 사라지고 다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이 무슨 경우인가! 철거하려면 한 번쯤 전화를 해주고 의견을 물었어야 하지 않았나?’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많이 서운했다.

저녁엔 부탁한 문서를 주겠거니 하고 집으로 갔다. 저녁에 교회에 가서 다니엘 기도 첫날을 맞이했다. 그러나 저녁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카톡을 못 봤을까?’ 핸드폰을 열어 확인했다. 여러 상황이 겹쳐서 은혜롭지 못한 첫날을 보냈다. 토요일 낮에 도서관 정리 겸 해서 교회에 갔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소식이 없다. 일을 마치고 저녁을 기대하며 돌아왔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달라고 하지 못한 내 자신이 미워졌다.

다니엘 기도 두 번째 날이었다. 꿈땅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에 필요한 스티커를 책에 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 “쌤! 제가 부탁드린 것은 출력이 되었나요?”

“주일 날 아침에 드릴게요.”

차가운 대답에 낙담했다.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다. ‘금요일부터 회원들을 만나고 준비한 선물도 전달하려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 고향이 그리워졌다.

고향은 늘 아름다운 추억만 들려준다. 어린 시절 까만 지붕의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다. 예배당 안에는 가운데 흰 줄이 그어져 있었다. 들어서면 오른 편은 여성 신자, 왼편에는 남성 신자가 앉는 자리가 있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좌석을 폐지하고 가족끼리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셨다.

나는 교회 앞 오른편에 놓인 풍금을 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날 풍금은 뒷자리로 밀려나고 피아노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틈한 시간에 풍금을 치러 가곤 했다. 사모님께서 몇 명을 지목하시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다. 나는 도중에 그만뒀고, 한 친구는 끝까지 배우고 나중에 피아노 학원 원장이 되었다.

교회가 몇 번이나 변신했다. 20평대 까만 철판 지붕의 교회에서 60평대 벽돌 교회로, 그다음은 220평대 철근 교회로 성장했다. 추운 겨울, 교회 신축 공사 때 저녁 보초를 서며 사랑하는 아우와 장기를 두었던 생각이 난다.

그 아우만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난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밤, 천지에 흰 눈으로 땅이 덮혀 아무것도 분간되지 않던 그날 밤, 주님께서 동생을 데려가셨다. 눈 오는 계절이 되면 나는 늘 우울증에 시달렸다. 지금도 눈은 좋아하지만, 눈 오는 밤은 정말 싫다.

2002년 10월, 어느날 그날은 주일날이었다. 교회 역사상 유례없이 아침부터 교도소 운동장에서 야외 예배가 있었고, 운동회가 열렸다. 그 행사를 주관했던 나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700여 명의 인원이 운동장에 가득 찼다. 행사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되었다. 목사님과 당회가 통 크게 결단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주일에 전교인이 운동장에서 축제를 벌일 수 있었다.

추억의 상념에 젖어있던 나는 슬며시 눈물을 닦는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추억이 향수병으로 다가왔다. 다니엘 기도회는 계획대로 잘 참석했다. 예년에 비해서 강사진이 약하지 않은가 하며 스스로 판단하기도 했다.

11월 13일 수요일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교회에 나갔다. 도서관 쪽을 바라보다가 사라졌던 현수막이 2층에 예쁘게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았다. 며칠을 불만 속에 지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누구인지 현수막을 다시 걸어준 분께 감사와 축복을 보냈다.

그날 저녁, 강사님은 ‘Trent Post & Carmen Post’ 이렇게 두 분이였다. 통역사가 함께 했다. 간증하시는 시간 내 내 내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속에서 잘 살아오셨고, 온갖 핍박과 학대를 자행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셨다. 사랑으로 품어내신 그 사랑에 나는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렸다. 여기 교회에 와서 겪었던 어느 교역자의 지독했던 왕따와 멸시, 내 아들보다 20살 어린 철없는 청년의 희롱에 대해 분노하고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과거의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이 먹을 만큼 먹어 어른이 된 지금도 지극히 작은 일에 섭섭해하고, 혈기를 내었던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왜 그리 오랜 연륜의 신앙이 있다면서도 아직도 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지?’ 스스로 자책하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 다시금 말씀을 묵상했다.

- “재호야, 뭘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고 용서하질 못했니?”



예수님의 모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은 삼십에 예수님을 판 유다,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걸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섭섭해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났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까지. 그날 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했다. 이젠 정말 다 잊고 사랑만 해야겠다. 용서는 정말 힘들지만 꼭 해야만 하는 게, 용서받은 내가 할 도리이다.

2024.11.13

〈단편소설〉

금  
혼

여  
행

오십 년 전, 그날도 눈이 왔었다. 1974년 12월 7일 토요일이었다. 2024년 12월 7일도 토요일이다. 눈이 왔으면 좋겠다. 오전에 일찍 서둘러 기차표를 예약했다. 2박 3일로 호텔을 예약했다. 신안비치호텔이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목포에 갈 때마다 유달산 북서쪽 해변의 호텔이 늘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한 번은 숙박할 기회가 있을까 생각했다.

50년 전 봄, 유달산이 유채꽃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숙자씨와 유달산에 올랐다. 처음 만난 사이라 서먹서먹하긴

했어도 사진도 찍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영화도 봤다. 참 즐거운 데이트였다. 그해 겨울, 눈 내리는 토요일 11시에 우린 결혼식을 올렸다. 그땐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 병점 용두사를 드라이브로 다녀온 게 전부였다. 내가 세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때는 실업자였다. 해태제과에서 퇴직하고 철도청 공채에 합격한 후 발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수중에 돈이 없고, 주변에 조언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무심하게 지나간 것이다.

이번에 50년 전에 못 간 신혼여행을 계획했다. KTX열차표를 지갑에 소중히 보관하고 핸드폰에 저장해놔다. 호텔 예약을 확인하고, 조식과 석식에 대해 문의했다. 숙자씨는 저녁은 나가서 맛있는 것으로 먹자고 했다. 여행계획서를 다시금 꼼꼼하게 체크해 본다. 12월 5일 용산역에서 12시 18분에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탄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70년대에 보통 완행열차를 타면 서울에서 목표까지 하루종일 달려서 10시간 이상 걸리기 일쑤였다.

지금은 2시간 32분이 걸린다. 목포역에 오후 2시 50분에 도착한다. 호텔까지 택시를 이용할 것이다. 만약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고 맘에 들게 되면 다음날에도 택시 대절을 요청할 것이다. 호텔 체크인을 하고 간단한 복장으로 북항 어시장으로 간다. 그곳에는 여러번 들러서 회를 먹은 적이 있다. 서비스도 좋고, 회가 싱싱하다. 하긴 숙자는 회보다 항상 가득 차려진 쓰끼다시를 더 즐긴다.

여유있게 이른 저녁을 마치고 목포역 쪽으로 가서 도깨비 시장에 가보겠다. 젊은 시절엔 기차 시간이 임박하면 그곳에서 간단한 선물이랑 먹을 것을 사곤 했었다. 아주 작은 골목시장이다. 그래도 추억을 찾아보고 싶다. 겨울이라 저녁이 금방 어두워질 것이고, 아마도 호텔로 바로 가게 될 것 같다. 창문을 통해 작은 해수욕장이 드러나거나 잔잔한 바닷물결 너머로 작은 섬들이 보일 것이다. 그곳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전투지 중 하나라고 배웠다.

50년 전에는 그저 시골의 작은 방에서 보냈던 아쉬움을

오늘은 아늑하고 편안한 호텔에서 보낼 것이다. 정말 오랜만에 깊은 단꿈을 꾸며 행복한 밤을 보낼 것이다.

조금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어 창문으로 바다를 구경했다. 멀리 보이는 작은 섬들을 구경하고 싶어졌다. 그렇다. 오래전 돌아서 가까운 섬에서 1박을 한 일이 생각났다. 작은 민박집에서 모처럼의 여유를 즐겼고 낚싯대를 빌려서 바다낚시를 즐긴 추억도 간직했다. 망둥어 몇 마리와 이름 모르는 작은 고기를 잡았다가 모두 바다에 다시 놓아주었다.

우린 서둘러서 채비를 차리고 조식을 위해 호텔 뷔페 식당을 찾았다. 숙자와 나는 식성이 많이 달랐다. 나는 무엇이든지 잘 먹는다. 특히 날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나 숙자는 장이 약해서 음식에 주의를 해야 한다. 아침 10시,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렸다. 어제 호텔에 데려다준 택시 기사의 친절에 감동해서 오늘 하루 대절을 요청했다.

첫 코스는 명산이었다. 부모님 묘소가 있는 선산을 찾았다. 이번 여행의 주안점은 바로 명산 찾기였다. 두 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아버님은 담배를 많이 피우셨다. 당시 어른들은 방 안에서 피우셨고, 방 안에 있던 화로는 담배 피우고 나서 뒤처리에 유용하게 사용되던 시절이었다. 내가 처가에 가게 되면 담배 안 피우는 사위를 위해 꼭 나가서 담배를 피우곤 하셨다. 온 동네 사람들은 아버님을 법 없이 사시는 분이라고 칭송하셨다. 매사에 빈틈이 없으셨기 때문이다. 아마도 숙자는 그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은 것 같다. 명산 시골집을 지키고 계시는 작은 아버님도 뵙고 와야겠다.

결혼하고 나서 처가댁으로 재양을 왔을 때 도산 마을엔 청년들이 참으로 많았다. 몇 시간을 그들에게 시달리며 발바닥을 많이 밟았다. 내 작은 오기가 오히려 그들을 더 즐겁게 했다. 지금은 그 많은 아이의 즐거운 외침과 함성은 사라졌다. 동네에 한 집 건너 빈집이 생겨나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삶을 위해 도시로 떠났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한 분씩 고려장 같은 요양원으로 떠났다. 빈집 마당에 잡초가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 동리에 와서 살고 싶은데 누가 반겨줄지 모르겠다. 그리고 몇 년이나 버티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맞이할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진다.

농사가 끝난 황량한 들판을 가로질러 영산강 하구연을 지나 해남 쪽으로 가야겠다. 구성리 교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다. 나와 종씨인 온양방씨로 50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이 시골 마을 작은 교회에 부임했다. 이젠 은퇴할 나이가 되었던다. 처음 부임했을 때 교인은 노인 7명이 전부였던다. 교회는 낡고 비가 오면 곳곳에 빗물이 떨어졌단다. 하지만 그것을 수리할 능력도 돈도 없었고, 그저 믿음으로 기도만 했다고 했다.

어느 해 태풍이 몰아치던 여름, 승용차 한 대가 교회 앞에 멈추어 섰다. 몇 명이 내려 비를 피하러 교회로 들어왔다. 친구는 비 새는 곳마다 그릇을 받쳐 놓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건축 일을 하는 인천의 큰 교회 장로

님이었다.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고는 친구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고 돌아갔다고 했다. 3개월이 지나고 커다란 트럭에 자재를 잔뜩 싣고 와서 교회를 수리해주었다고 한다.

그 친구는 늘 말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다. 목포의 한 유치원 원장이 찾아와 운전을 배우라고 돈을 주고 가서 운전면허를 땔다고 했다. 그 원장이 봉고차를 사주었다고 했다. 친구는 그 봉고차로 온 동네 노인들의 발 노릇을 했다. 병원에 가는 일, 시내에 시장을 보는 일, 모두가 사모와 자기의 사역이 되었단다.

덕분에 노인들이지만 교인 수가 20명 가까이 되었다고 자랑했다. 해남으로 가는 초입에 있는 구성리 교회에 꼭 가야겠다. 친구와 교재를 나누고는 다시 목포로 돌아와 관광을 즐겨야겠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갯바위를 찾아가야겠다.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울 때 머리를 식히려고 이곳 갯바위 바닷가를 찾은 적이 있었다. 바닷바람이 걱정과 근심을 날려주었다.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바닷길을 걸어보리



라. 가까이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도 둘러 보고 남농미술관도 가봐야겠다. 근처에 새로 생긴 평화의 공원도 감상하고 싶다.

둘째 날 저녁은 호텔에서 단꿈을 꾀야겠다. 날이 바뀌면 50년 전 그날이니 설렌다. 어찌면 날짜가 그리 똑같은까? 평생 그날을 못 만날 것 같았는데 말이다. 눈이 왔으면 좋겠다. 일기예보에는 비가 내린다고 한다. 서울이면 눈이 올 터인데 아쉽다. 12월 7일 호텔 체크아웃 전에 유달산을 다녀와야겠다. 50년 전, 전망대 앞에서 관광 사진을 찍고 주소를 건네주었더니 일주일 후쯤에 사진이 집으로 왔다. 그 사진이 우리가 결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장모님이 그러셨단다. 숙자에게.

- “미친 가시나야! 왜 사진을 찍었노?”

그까짓 사진이 무어라고 하지만 50년 전, 우리네 인식은 참으로 소박했다. 작은 약속도 철저히 지켰다. 학생 시절

역사 시간에 들었던 노적봉도 보고,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시비도 보았다. 사실, 그때 ‘목포의 눈물’ 가요를 몰랐었다. 가요에 별로 취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성유업 근무 시절 함께 후리자를 보던 가수 지망생 친구가 틈만 나면 내게 가요를 가르쳐 주었다. 통소도 만들어 주었다. 야간 근무 때면 졸음을 쫓기 위해 작업반 여성들이 유행가를 많이 부르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가요에 그리 관심이 가지 않았다.

겨울의 유달산은 어떤 모습일까? 많이 궁금해진다. 그 전망대 앞에서 다시금 똑같은 사진을 찍어야겠다. 여행이 3일 남았다. 핸드폰에 철도파업 문자가 떴다. ‘파업이라니?’ 아침에 철도 공사 안내센터로 전화했다. 내가 예약한 KTX가 운행이 불투명하단다.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파업 철회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지인을 통해 철도파업 소식을 알아보았으나 반가운 답변이 없다. 숙자가 말했다.

- “여보, 우리 여행 포기하자. 그냥 근사한 곳에서 하루

보내자.”

결국 하루 전날, 열차표를 반환하고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 열차표를 반환하려고 전철을 기다리는데, 동짓달 짧은 해가 수리산 기슭의 싸늘한 바람을 보내고 얇미운 미소를 띠며 수리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고 있다.

2024.12.2

〈산문〉

우  
리  
가

버  
린

크  
리  
스  
마  
스

이  
브

토요일 마지막 수업은 일반화학이다. 재호는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마지막 1분까지도 정확히  
지키시는 김영호 선생님이시다. 병규네 집으로 달려가 자

전거를 점검했다. 12월 초인데도 아직은 춥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왔다. 재호에게 12월은 정말 바쁜 시간이다.

저녁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과 연극을 지도해야 한다. 학생회장을 맡고 있기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준비해야 한다. 오늘은 집에 일찍 돌아가서 소여물을 썰어야 한다. 작두로 여물을 썰는 일은 보기보다 힘들다. 집중해야 하고, 아버지와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두 마리 소의 겨울 양식은 준비가 마만치 않다. 시간이 있을 때는 들판을 다니며 배추와 무잎, 마른 시래기를 걷어오고 마른 고구마 줄기도 걷어온다.

학생 예배 전에 덕고개 사시는 최장로님을 뵈러 가야 했다. 짧은 겨울 해를 뒤로 하고 덕고개 최장로님 댁을 찾았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낼 커다란 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와서 엉성하게 만든 창호지 등을 가져와서 팔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재호가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

더니 2,000원을 주셨다. 장로님께서 학생회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위하여 커다란 안방을 내어 주시겠다고 흔쾌히 승낙하셨다. 재호는 너무나 기뻐했다.

12월 24일 학교 겨울 방학식이 있었다. 수업은 없고 프린트한 겨울 방학 과제물을 받았다. 즐거운 방학보다는 저녁에 있을 크리스마스 이브의 특별행사가 설렘으로 다가왔다. 친구 병규를 꼬셔서 비산시장으로 갔다. 선물 교환에 낼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다. 작은 주머니 사정 탓에 맘에 드는 선물 사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결국 연필깎이를 샀다.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행사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순서는 주일 학교에서 준비하고 학생부는 합창과 시 낭송을 맡았다. 여학생들은 열심히 저녁에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저녁 9시쯤 교회 행사가 끝나고 최장로님댁으로 모였다. 새벽 4시, 새벽송 시작 전까지는 우리들의 시간이었다. 어떤 때에는 노는 것이 아쉬워 새벽송을 빼먹고 혼난 적도 있었다.

둥글게 앉아 자리 잡고 박수 게임을 시작했다. 놀이의 하이라이트는 선물교환이다. 내가 준비한 선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친구에게 가기를 손모아 기도해 본다. 본의 아니게 내가 준비한 선물이 내게 뿔히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모두의 웃음을 자아낸다.

이른 새벽, 장로님 댁에서 우리에게 맛있는 떡국을 끓여 주셨다. 완전 무장을 하고 교회로 가기 위해 장로님 집을 나섰다. 초저녁부터 내리던 눈이 제법 많이 쌓였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이다. 우리가 늘 꿈꾸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졌다. 찬양과 주의 사랑을 전해 듣고 새벽송 찬양단은 5개 조로 편성되었다. 금성마을, 덕고개, 갈마, 포도원, 벌터금정이다. 한 조에는 학생 5명, 어른 7명으로 12명이 편성되었다. 등을 들고 앞선 사람과 선물 자루를 가진 사람이 뒤따른다. 재호는 5조 벌터금정조에 속했다.

맑은 내 다리를 건너 벌터에 들어섰다. 마을 길에 눈이 제법 쌓여서 발목까지 빠진다. 새벽 눈이 쉽 없이 내리고

들판이 하얗게 덮였다. 쟁굴로 가는 길에서 몇 사람이 눈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다. 맨 마지막 집은 재호네 집이다. 새벽송을 마치고 모이면 할머니는 늘 소고기국밥을 대접하셨다. 좁은 방에 십여 명이 넘는 숫자가 이불을 가운데 두고 앉아 선물을 점검하며 몇몇 맛있어 보이는 과자를 골라 함께 나눈다.

그렇게 눈을 잠시 붙인 후, 교회로 향한다. 성탄절 날 아침 예배를 드린다. 새벽송 때 들어온 선물은 모두 주일학교에 보내져서 아이들의 성탄절 선물로 나누어진다. 아침에 눈이 그치고 햇빛에 흰 눈이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아! 벌써 55년이 지난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빨리 가자는 박권사의 재촉에 재호는 마지못해 서두르는 척을 했다. 12월 22일 주일 오후에 성탄절 전야제가 있단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은 무엇을 하지. 매년 반복되는 쓸쓸함이다. 사회 친구들은 모두 즐기기에 바쁘고, 교회는 고요하게 시간을 보낸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버렸다. 편리함 때



문에 그저 형식적인 크리스마스 아닌가. 찬송가의 성탄절 찬양은 일 년에 딱 한 번 부른다. 교회 밖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가 깜박이며 쓸쓸하게 이브의 밤을 지킨다.

2024.12.24

〈단편소설〉

재  
호  
의

두  
번  
째

고  
백

사랑하는 친구 숙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요즘 어머니의 기억이 너무 짧아져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년 넘게 치매약을 드셨는데, 요즘 부쩍 기억이 많이 흐립니다. 90년 세월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아! 벌써 90세가 되셨구나. 무색하게 살아온 내가 복잡한 세속이 삶에 바쁘게 살다가 잊고 있었구나. 빨리 찾아보아야겠구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오라고 했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1995년 여름 어느날, 눈이 유난히도 예쁜 숙을 만났다. 늘 수줍고 잔잔한 미소에 반해서 거의 매일 만났다. 사실은 만나기보단 그녀의 직장이 서울 D동 동사무소이고 나는 금정역에 근무하다보니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급속히 친해졌다. 한번은 일부러 서울로 올라가서 김밥을 싸 들고 한강 변을 거닐며 데이트를 즐겼다.

96년 5월 초에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했다. 어버이날에 시골에 가야 하는 데,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지 않을 거면 아예 오지 말라고 했단다. 그런데 나는 40대 중반의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한다. 조금은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다.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으니 말이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재삼 부탁을 했

다. 그냥 같이 가고 싶단다.

5월 4일 토요일 오후에 만나 목포행 무궁화호 열차에 나란히 앉았다. 김제역에 내려 복분자술이랑 몇 가지 선물을 준비했다. 시골 버스는 낮선 시골길을 천천히 달리며 이곳 저곳을 보여주었다.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안하마을’ 막상 집 앞에 도착해서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빙그레 웃으며 팔을 잡아끈다. 진짜 여자친구 집에 처음 방문한 총각 신세 같다.

넓은 마당과 검은 기와지붕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큰 소리로 부모님을 불렀다. 반갑게 뛰어나오신 어르신들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남자 친구라고 나를 소개했다.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던 아버님께서 어서 들어오라며 반갑게 맞아 주셨다. 어머니는 미심쩍은 눈초리로 계속 나를 훑어보시는 것 같다. 딸은 믿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 것을 아시는 것 같다. 더 이상 어르신들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드리

려고 했더니, 그녀가 내 입을 막고는 어머니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다.

잠시 후, 우리는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마루에 앉아서 식사와 덕담을 즐겼다.

- “숙이가 두 오빠를 잃고 매우 힘들었나 보다. 잘 오셨어요!”

하시며 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1993년 10월 10일 위도에서 있었던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 20대 중반의 두 아들을 잃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사고는 나도 알고 있었다. 362명이 승선하여 70명만 구조되고 292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고였다. 그러나 숙은 내게 그 사고로 오빠를 잃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었다. 그날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다. 어머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우리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아버님은 슬며시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챙기셨다.

작은 대나무 낚싯대, 칼, 도마를 챙기시고 고추장을 달라고 하셨다. 내가 사간 복분자 술을 밀어 놓고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셨다. 아버님께 술 많이 드리지 말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심포항으로 갔다. 해 질 녘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다.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갯바위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가끔 오셨던 장소인지 아버님은 망설임 없이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드리웠다. 불과 10여 분 만에 서너 마리의 망둥어를 잡아 올리셨다. 익숙하신 솜씨로 도마에 회를 떠주시고는 소주병을 꺼내셨다.

당시 술을 먹지 않았던 나는 열심히 따라 드리며 아버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두 아들을 잃었을 때의 심정을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막내아들은 군인이었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던 것이라고 하셨다. 결혼을 앞둔 큰아들과 제대를 얼마 남겨 놓지 않았던 막내아들은 서로의 경사를 축하하며 문을 나섰는데,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날 저녁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

다. 아버님은 놀란 마음은 급히 격포항으로 갔다. 밤늦게 싸늘한 주검이 된 두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 두 아들을 안고 밤새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셨단다. 두 아들을 화장해서 바다로 보내고, 그날부터 술이 주식이 되었다고 하셨다. 가져간 4홉들이 소주가 바닥이 났다. 술을 먹지 않던 내가 대작을 하는 바람에 술이 일찍 떨어졌다. 내가 근처 가게에서 2홉들이 소주를 2병을 더 사왔다.

해는 지고, 밤 출항을 준비하는 어선들의 불빛을 바라보며 소주잔을 비웠다. 아버님의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어머님과 숙이 찾아왔다. ‘어?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질 않는다. 정신은 말짱한데...’ 그날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아침이 되어 숙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런데 나는 낮선 튜리닝을 입고 있었다. 간밤에 술에 취해 옷을 다 버리고 어머님과 숙이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고 했다. 오빠가 입던 것이라고 했다. 완전 실수를 했다. 처음 뵈어

신들께 추한 모습을 보여드렸다. 평소에 술을 전혀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처음 먹은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 아직도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 어머니가 생합탕을 끓여주셨다. 새만금 갯벌에서 가장 맛있는 조개란다. 정말 맛이 있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속이가 바다에 가잔다. 조금 있으면 조개를 캐러 가신 아버지가 오신단다.

어젯밤에 그렇게 저녁노을이 아름답던 바다는 사라지고, 넓디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넓은 갯벌을 본 것이 처음이었다. 저 멀리 조그만 점들이 움직이더니 점점 커지면서 다가왔다. 경운기에 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다 갯벌을 누비는 경운기도 처음 보았다. 어제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셨던 아버지께서 꽤 많은 조개 바구니를 가지고 나오셨다.

그날 처음 맛보았던 신김치에 짠 죽합의 맛은 잊지 못하는 또 다른 추억이 되었다. 잡은 조개는 바로 수협공판장에 넘기고, 내게 주시려고 생합(백합조개)하고 죽합을 조금



씩 가져오셨다. 아버님은 점심을 드시면서 해장술을 하셨다. 내게 술 한잔하겠느냐고 하셨다. 나는 손사래를 치면서 어제 죄송했다고 말씀드렸다. 아버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가끔 내려와서 술 동무하자고 하셨다.

늦은 오후에 집에 가기 위해 나섰다. 부모님은 정말 아쉬워하시며 배웅해 주셨다. 내가 정말 사위인지, 아들인지 착각이 될 지경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급속히 친해졌다. 기차 안에서 물었다.

“왜 오빠 이야기 안 했니?”

그녀는 내 팔을 꼭 끌어안으면서

- “언제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하며 눈을 흘겼다. 하긴 한 번도 가족에 대해 묻지 않았던 나였다. 기차가 서대전을 지날 무렵부터 잠깐 잠이 들

었다. 처음으로 마셨던 술이 아직도 피로감을 선사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저녁 집에 도착한 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차에서 내려 전철을 타고 오면서 주일이었는데 교회도 못 간 것에 마음에 쓰였다. 살며시 집에 들어섰다.

96년 가을에 숙이가 결혼했다. 내 위치는 친구에서 오라버니가 되었다. 그해 숙이는 전주시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겨울이 되면 외삼촌이 될 거라고 꼭 오라고 신신당부하며 전주로 이사를 갔다. 무언가 한쪽 팔이 떨어진 것처럼 허전했다. 숙이의 전화를 받고 정월 초에 김제로 갔다.

마침 숙이가 둘째 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몸조리하고 있었다. 해산물로 가득한 어머니가 차려주신 생일상은 정말 잊을 수 없었다. 2006년도 봄에 내가 장로 장립식이 있기 전날이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아들이 장로가 된다고 모두 안양에 오시기로 했는데... 장로 장립식이 끝나고 바로 김제로 내려갔다. 삶이란? 어쩌면 이렇게 허무해질 수

가 있나보다.

어머님은 아무 때나 김제에 있는 아담한 기와집에 와서 쉬었다가 가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전주에 사는 숙이네로 이사를 가셨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는 93세가 되셨다. 사람은 참 신기한다. 어려서 열심히 자라고 어른이 되어 자식을 키우며 살다가 다시 어린애가 된다. 숙이한테 말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할 때다.

어머니께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열심히 사랑하며 살자고 약속했다. 어머니께서는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고, 권사님이 되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숙이도 권사가 되었고, 매제도 장로가 되었다. 주께서 주신 작은 인연이 참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다. 매일 어머님과 숙이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

2024.4.20

추억의  
편지



## 사랑하는 당신께

먼저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요.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해 일찍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오늘 낮에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나고 마음도 착잡하고 날씨도 추운데 당신은 밖에서 피곤한 몸으로 온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구나 생각하니...

여보, 1996년은 얼음판 위를 걷듯이 살아왔지요. 내 잘못도 많았어요. 우리 부부가 19'년에는 더 솔직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여보, 올해도 건강하시고 믿음직한 남편이 되시길 빌며, 저도 사랑받는 아내가 되길 노력해보겠어요. 우리 가정은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부터.

## 사랑하는 당신께

당신을 만난 지 벌써 24년이 되었소. 그림처럼 아름다운 시골, 처음 가본 유달산에서 당신의 모습은 정말 착하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여인이었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나를 위해 잘 견디어 준 당신께 무어라 감사할 수 없소. 이제 약해진 몸과 병마로 싸우는 당신을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 무어라 말할 수 없다오.

당신이 어려서 내게 시집왔을 땐 내가 철이 없고, 어른들 눈치 보느라 당신께 잘해주지 못했소. 또 나이가 들어서도 또 다른 일로 당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지금까지 깊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는 지금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오. 정말 당신을 위해 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 할 수 있소. 내 목숨까지도 당

신을 위해 바칠 수 있소.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소. 하루 빨리 당신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소.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화내는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다오. 오늘은 정말 미안하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못난 남편

## 엄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제 앞길에 놓인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망설이곤 했어요. 이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 조금씩 보이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그러나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보란 듯이 멋진 삶을 살거예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신거 저도 잘 알아요. 과연 엄마한테 무엇을 보여드리는 게 아들의 몫인가도 생각해보았지만... 결론은 항상 엄마 말씀이곤 했어요.

“너 직장 잘 들어가고 몸 건강하면 엄마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다.” 라고 하신 말씀 말이에요. 더 많은 것들로 보답 드리고 싶은 마음 한결같지만 조금 부족한 지금 제 모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제가 덜어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요. 힘 낼테니 응원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영원한 엄마의 큰아들이 드립니다.



## 아버지

참으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입니다. 구조조정, IMF, 정리해고. 이런 말들이 섬뜩하게 들려올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는 별 상관없는 얘기들이라 신경쓰지 않기로 맘을 먹기로 했구요. 그런데 요즘 아버지를 보면 너무나도 힘에 겨워 보이는 모습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팔씨름을 하던 때도 생각나고 함께 목욕탕에 가면 등을 밀어주시던 아버지의 큰 손도 생각합니다. 세월이나 나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아버지의 능력이나 힘이 아직도 넘치시는 데 말입니다. 당신께서 힘에 겨워하시는 모습, 자신감을 잃어버리신 것만 같은 모습은 저를 자꾸만 작아지게 하곤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작가의 꿈, 그리고 푸른 초원의 작은 저택을 지어 사실거라 하셨던 말씀들. 이제는 그런 것과 바꾸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넓은 어

깨와 한없이 기대어 쉴 수 있는 큰 가슴입니다. 힘내세요.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 사랑스러운 나의 가족들과 언제나 활기차게 그리고 단란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 역시 노력할게요.

두서없이 쓴 글입니다. 버릇없다 타박마시고 그저 아버지의 힘찬 모습을 뵈고 싶어서 그런 작은 바람에 몇 자 적어 올려봅니다. 날마다 즐겁고 기운 찬 하루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며...

큰 아들이 올립니다.

## 사랑하고 보고싶은 가족들에게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화생방 훈련을 마치고 오는 길에 두 통씩이나 되는 편지,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느낀 건데 가족이라는 존재는 길면 긴 2년이라는 기간을 지내는 데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인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다니 정말 안심이 됩니다. 저 역시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다지 힘든 훈련도 없었습니다. 이제 2주 남아있습니다. 이번주 행군만 끝나면 모든 훈련은 끝이 납니다. 이제는 정말 운이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훈련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시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군대 가기 전 우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 휴가 나갈 때는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편지 처음 보았을 때 눈물이 나 힘들었습니다. 강

해져야 하는 시점에서 이런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껏 울었습니다. 그래도 창피하거나 그리진 않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었기 때문입니다.

면회 오실 때 좀 더 남자다운 모습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버님도 역시 오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장안아들 인정을 한 번 기대해 주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편지 드리겠습니다.



장안아들 인정이 올림.

## 언니

시어머니가 되는 것을 축하해. 언니는 참 좋은 시어머니가 될거야. 분주한 맘도 있고 허전한 맘도 있겠지. 딸이 없으니 예쁜 딸이 생겨서 행복하겠다. 정말 축하해.

돌아보면 34년 세월동안 시누이들을 결혼시키고 시아버지, 할머니, 시동생, 참 큰일도 많이 치르고 웃는 날 보다는 힘들고 슬픈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될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참 미안하네.

언니한테는 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도 해줄 것이 없어 맘이 아프고 그저 바라보고 기도해 주는 것 밖에 해줄 것이 없어 정말 미안해.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늘 걱정거리만 되는 것 같아서 또한 미안함도 크네요.

그래도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니. 지금은

힘들지만 든든해요. 함께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또 행복하구요. 엄마 생각하면 늘 마음 한 구석이 아파서 견딜 수 없지만 함께 생활하는 언니는 더 힘들겠지 하며 기도해요. 더 이상 나쁜 상황들이 없기를. 그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언니, 늘 맘으로 함께해줄게요.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 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겐 엄마같은 언니. 다시 한 번 축하해요.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요. 언니 파이팅!

2008년 2월 16일 명윤드림

## 봄 동산

봄이 찾아 올 날도  
멀지 않았어요  
하고 바람이  
귀에다 속삭여  
줍니다.

나무들도 좋아서  
손을 살래살래  
흔든다.

개나리와 진달래도  
눈 뜰 날을 기다리며  
방긋이 웃네.

바람이 솔솔 불니다.  
개나리 가지를 스치며  
눈을 뜨세요 하고  
알려주지요.

추억의 편지

진달래도 소식  
을 기다리며  
하품을 하네.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빨리빨리  
눈을 뜨세요.  
바람이 속삭이며  
스쳐 갑니다.

아유, 눈부서  
진달래와 개나리가  
기쁨에 넘치는  
말로 이야기하지요.

범나비도 꽃을 찾아  
너울너울 춤을 추네.

봄 동산도 멀지 않아  
향기의 동산이 될거야.

군포교 6-5반 방명분



# 에필로그



이 글을 쓰면서 다 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 쓰려면 1년은 더 걸릴 것 같고, 부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시간 보름은 너무 빨리 지나가 이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80년대 이후 직장생활은 평탄하였습니다. 말년 15년간 노조간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주위 친구들 나를 돌봐주신 여러 선배들이 많이 말렸지만 역장, 부역장을 할 기회를 버리고 젊은 친구들과 철도 민영화를 막겠다고 투쟁했습니다. 그때의 추억은 참으로 기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6·28동지를 지금도 열심히 만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올어머니는 심성은 대단히 착한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지 못하셨지만 말년에 사랑하는 딸 품안에서 행복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끝까지 돌봐준 매제와 조카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 하나의 후회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이 죽었을 때 남겨진 두 여동생들을 끝까지 가르치지 못한 것이 몹시 후회가 됩니다. 그때에는 재호 자신이 많이 방황하던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묵묵하게 지켜주고 함께한 아내에게 이 글을 바치고 싶습니다. 우린 철없던 23살, 22살에 만나서 딱 얼굴 세 번보고 결혼하였습니다. 시집와서 많은 농사를 짓는 시부모와 시동생들, 또 다른 식구들 14명이나 되는 많은 식사를 책임졌고 철없는 남편의 여러 사고들을 슬기롭게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곁에서 재호를 응원하여 주었습니다.

1983년 말, 군포읍에서 주는 효자, 효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삶이란, 만나고 생활하고 헤어지는 소소한 일들의 기록일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준 예쁜 친구 “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동막골 소년의 고백

초판 1쇄 2019년 1월 31일 발행

2판 1쇄 2020년 2월 14일 발행

2판 2쇄 2023년 2월 14일 발행

3판 1쇄 2025년 2월 14일 발행

지 은 이\_ 방명국

표지디자인\_ 박재희

펴 낸 이\_ 방수영

펴 낸 곳\_ 이분의일

주 소\_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2길 6, 과천테라스원 508호

전 화\_ 02-3679-5802

이 메 일\_ onehalf@1half.kr

홈 페이지\_ www.1half.kr

출판등록, 제2020-000015호

©방명국, 2025

ISBN 979-11-89748-03-6 (03810)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출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